



광명스피돔의 경주 모습

**복승식·삼쌍승식 새로 추가
경륜배팅 재미가 2배로 쑥↑**

4가지 승식을 운영하던 경륜과 경정에 3월부터 복승식과 삼쌍승식이 추가됐다. 앞으로 총 6가지로 운영하는 승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경륜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복승식, 보탬이 될 수 있는 승식

이번에 새로 도입한 승식이다. 복승식은 1, 2위 선수 2명을 순위 관계없이 적중하는 방식이다. 축이 뒤바뀌더라도 적중할 수 있는 승식이다. 쌍승식의 경우 종종 예상치 못한 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대비한 일종의 보탬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승식이다.

●쌍승식, 축이 확실한 경우에 대응

복승식과 달리 1, 2위 선수 2명을 순위까지 맞추는 방식이다. 축도 확실해야 하고 후착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적중확률은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적중시 배당 메리트는 확실한 승식이다. 신뢰할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삼쌍승식, 축이 애매하거나 삼파전일 때

1, 2, 3위 선수를 순위 상관없이 맞추는 방식이다. 쌍승식 예측이 어긋나거나 혹은 인기 높은 선수가 기대 밖으로 3위에 그쳐도 적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와 함께 쌍승식 보탬용 승식으로 자주 이용된다. 특히 우승 후보가 삼파전으로 전개되는 확률이 높지 않는 경주를 공략해볼 때 유용하다.

●쌍복승식, 축 확실하고 후착 싸움인 경우

1위 선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나머지 2, 3위는 순위와 상관없이 맞추는 승식이다. 쌍승식과 삼쌍승식을 혼합한 형태다. 쌍승식, 삼쌍승식보다는 배당이 높게 형성되기에 경륜 마니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적중 확률이 낮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삼쌍승식, 가장 어렵지만 성과도 크다

적중이 가장 어려운 승식이다. 1, 2, 3위를 순위대로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승식별 확률을 보면 단승 7분의1, 복승 21분의1, 삼복승 35분의1, 쌍승 42분의1, 쌍복승 105분의1인데 삼쌍승식은 이보다도 확률이 낮아 201분의1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만큼 배당 메리트는 매우 높다.

도움말 | 명품경륜 승부사 이근우 수석기자
정리 | 김재범 기자

경륜·경정도 오늘부터 전 영업장 고객 입장 재개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전 관람객이 가득한 가운데 응원과 환호성을 들으며 경륜 선수들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긋지긋한 무관중 레이스 끝
“경륜·경정팬 모두모두 모여라”**

오랜 시간 정적만 감내하던 경륜과 경정장의 객석에 다시 팬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들리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이하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3일부터 경륜과 경정의 전 영업장에서 고객 입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경륜과 경정장의 고객 입장은 지난해 11월 본장과 수도권 지점이 휴장을 시작한 지 1년 여 만이다. 경륜·경정은 8월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작하면서 무관중(대전, 천안지점은 정월 20% 입장)으로 레이스를 실시해 왔다.

경륜·경정장 입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 또는 PCR검사 음성인 경우에 허용된다. 영업장 입구에서 전자증명서(QR코드 인증)나 종이증명서(접종완료 증명서, 신분증 확인) 또는 PCR 음성확인서(신분증 확인)를 확인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경우 입장 시점에서 48시간 이전까지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만 유효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시 고객을 받는 영업장의 밀집예방을 위해 영업장별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영업장 입장을 위해서는 경륜·경정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객은 영업장 입구에서 마

백신 완료·PCR 음성자 한해 허용
홈페이지 사전에 예약해야 입장
클라 등 비알콜성 음료만 취식 가능
매점·실내흡연실 폐쇄...방역 만전

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기 사용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체크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객이 입장 수칙을 거부할 경우는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영업장 역시 철저한 방역으로 선수들의 안전한 경주 진행과 고객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밀폐된 실내흡연실은 모두 폐쇄하고 고객이 한 공간에 모이지 않도록 직원들이 안내한다.

경기 중에는 관람 공간의 창문을 개방하고 공조기를 가동해 실내공기를 환기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경륜·경정장 전 구역에 매일 2회 소독하며 전문업체를 통해 주 1회 특별방역을 별도로 실시한다. 또한 비알콜성 음료 외에는 취식을 제한하고 장외지점의 매점은 운영하지 않는다.

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해 내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3주간 15개 전 지점을 순회하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경주를 관람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관객 재입장이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입장과 방역을 강화하여 경륜·경정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직원과 선수들도 한 치의 방심도 없다는 각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3일부터 경륜·경정 경주 승식에 복승식과 삼쌍승식 발매를 추가로 시작한다. 복승식은 순위 관계없이 1, 2위로 도착한 선수를 적중시키는 방식이고 삼쌍승식은 1, 2, 3위를 순위 순서까지 적중시키는 방식이다. 기존 단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쌍복승식에 새로 두 가지 승식을 추가해 경주 배팅을 총 6가지 승식으로 운영한다.

5일부터는 경륜 광명 경주를 6경주(우수 3경주, 특선 3경주)에서 7경주(우수 3경주, 특선 4경주)로 확대 운영한다. 경륜은 이날부터 광명 7경주, 창원 3경주, 부산 3경주 등 하루 총 13경주를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12기 조성인 10기 김완석 2기 김종민

조성인·김완석·김종민...경정 다승왕 3파전

경정 다승왕 경정이 치열하다. 39회차까지 성적을 보면 조성인이 16승으로 선두다. 올해 27회 출전 중 우승 16회로 승률 59%, 연대율 78%, 삼연대율 89%다. 2위는 김완석으로 15승이다. 감각적인 스타트와 탄력적인 전술로 출전시 입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흥 강자다. 3위는 14승인 '2021 쿠리하라배'의 주인공 김종민이다. 30회차인 8월 26일부터 38회차까지 12연속 입상 중이다.

그 외 출발위반으로 출전이 중단된 심상철이 14승으로 공동 3위이고 역시 출발위반으로 제재 중인 김민천이 13승으로 5위다. 1위부터 5위까지 차이가 많지 않아 심상철과 김민천이 복귀하면 시즌 마감까지 다승왕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상금 부문은 쿠리하라배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획득한 김종민이 단독 선두다. 현재 4200만 원이고 상승세가 뚜렷해 상금왕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2위 조성인은 3600만 원으로 1위와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 그랑프리 성적에 따라 역전도 노려볼 수 있다. 김재범 기자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에 기부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0월 30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2021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기부금 전달식(사진)을 진행했다.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경주사업총괄본부와 광명 YMCA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9월 초에 시작해 2개월여에 걸쳐 총 7회 교육을 실시했다. 상담을 통해 치료방식을 결정하는 맞춤형 심리치료, 자전거 조립부터 구조와 원리 알기, 올바른 주행, 달리기 등 기초교육과 동네 한 바퀴 자전거 라이딩을 통한 활동치료를 진행했다.

“희망이 가득합니다”



신규창업 특전 5無!

- 가맹비 •감리비
- 보증금 •광고비 •로열티

함께 활짝 웃을수 있는 가맹점!

업종전환 / 브랜드변경
비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방장이 필요없는 가맹점!

샤브샤브식 닭한마리와 궁중찜닭!
적게 투자하고 정직하게 남는 닭한마리집!

“특허받은 해초김으로 칼국수나 죽으로 마무리~” 창업문의 1833-6927